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김순진(요셉) • 보좌 신부 : 김남웅(프란치스코)
사목회장 : 김도호(시메온) 267-992-5462 • 연령회장 : 김향규(안드레아) 201-874-4497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복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주일학교 미사)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97 구원의 메시아
제 1독서 : 이사야서 11,1-10
화 답 송 :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제 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5,4-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 마태오 3,1-12
봉헌성가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송 :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성체성가 : 156 한 말씀만 하소서
157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파견성가 : 92 구세주 내 주 천주여

전례 봉사자

일 시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성체 분배	구역봉사
12월 6일 (토) 8시	김창하	김정애	이현숙	이세희 권서현 권찬중 권서진		
12월 7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박재현 김훈식	이순철 류낙진	박경미 박금숙	이동근 이사랑 이재준 임진이 최세레나 최안젤라 인서윤 인서진	김현직 김근회 이인섭	Huntingdon Valley
12월 9일 (화) 8시	김성호	소병진		공태환 김진성 루이스보일 손은비		
12월 11일(목) 8시	김훈식	김정애		이세희 정예은 김다하 김이안		
12월 13일 (토) 8시	박재현	이순철	김승현	양준성 박시후 이도훈 정이안		
12월 14일 (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김항규 임경화	이진용 김종혁	노원진 강명숙	최성현 최성진 이동근 공태환 이지은 이사랑 최안젤라 손은비	강호신 김석현 김도호	Norristown

출 퇴근 길에 잠시 성당 앞에서 기도 드린 적 있나요?

전에 주임신부 할 때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성당 앞을 지나며 잠깐 성당 문 앞에서 기도하고 가는 이들을 본 적이 있다. 참 보기가 좋았고 그런 이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숙연 해진다.

나도 군대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 연대가 각종 훈련을 받으러 가려면 늘 연무대 성당 앞을 지나 가야 했었다.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어 이 훈련을 무사히 잘 받고 이 길로 다시 돌아 가게 하소서." 성전을 앞을 지나 출퇴근하는 이들의 기도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본당 신자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비록 돌아 가더라도 성전 앞 길을 이용해서 하느님께 잠깐이나마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고 가는 습관을 들이자 권고했었다.

나는 늘 성전에 전기 불을 어느 정도는 켜 놓는 편이다. 불 꺼진 성전에 들어 간 경험이 있는가? 어느 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픈 마음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왠지 내가 혹시 잘못 들어왔나 하는 생각에 금새 나오게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성전에 어느 정도는 불을 켜 놓고 누군가 들어와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을 켜 놓는다. 전기 요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수십억을 들어 성전을 멋지게 지어 놓고 그깟 전기 요금 얼마가 아까워 전기 불을 꺼 놓고 신자들로 하여금 성전에 발길을 끊게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전인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하느님께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도하고 픈 마음에 성당에 왔는데 막상 성전에 불이 꺼져 깜깜하다면 그런 마음마저 닫히게 한다.

나는 미사 중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는 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하자고 했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로서 일체감을 갖자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 신부님 저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인데 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할 때면 늘 긴장되어 더 땀이 납니다. 그래서 신부님 미사가 부담스러워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었다. 미사가 편안해야 하는데 누구한테는 불편과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되었다. 특히 그 미사가 신자의 의미인 주일미사라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기도'를 바칠 때 손을 잡고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특별히 작은 소그룹 미사이거나 소공동체 미사일 때는 간혹 잡기도 한다. 그 미사가 의무가 아닌 소그룹 신심 미사인 경우에 한해서이다.

보좌신부일때는 평일 미사에 신자들이 별로 없으면 다 같이 앞으로 모여 미사를 드리고자 제안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미사를 중단한 적도 있었다. 참으로 당돌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너는 미사를 늘 앞에서 드리고 있는가? 너도 신부가 되기 전에는 늘 뒤에서 조용히 미사 드리고 사라지지 않았는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있는 신자도 있으며 그럼에도 비록 뒤에서 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모두 앞으로 오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냥 저마다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하며 오히려 미사에 더 집중하려 한다.

– 주임신부 –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2,812.-
감사헌금 최성욱 $100.-
교 무 금 $3,820.-

박종순(12)	김근회(12)	이철규(12)
최상욱(12)	김명호(12)	김기성(7-9)
정근식(12)	이재업(12)	이홍렬(10-12)
김종혁(12)	이다이(12)	신영민(11-12)
조광수(12)	이종진(12)	신지우(11-12)
박재철(12)	이동형(7-12)	신정우(11-12)
권인택(12)	이종환(6-10)	신승우(11-12)
이규선(9-10)		

금주의 영명 축일 - 축하합니다!

12월 7일	암브로시오 : 정해성
12월 10일	율리아 : 정은아　　율리아나 : 이경주
12월 13일	루시아 : 손은지 조옥희 최춘식 김창하 박귀복 오미자 황미애 윤승영 온진원 이주연 김수연 최농자 최정윤 김미영 김지혜 유순남 홍경애 공재순 홍윤아 김영자 박금숙 최태희 권수련 박옥자 오요린 이애주 오요라 오틸리아 : 강진희

미사 지향

토요일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이정순(마리아)		영원한 안식
오전 7시	연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이익경(도미니코)	가족	
		이성국(바오로)신부님 최준웅(바르나바)신부님		
		이인한(제임스) 정봉금(이레나)	가족	
		송주화(골라도) 하희숙(나타리아)	송요한	
	생	황영순(모니카) 이성숙(비비안나)		주님 축복 은총 건강
		홍경애(루시아)	재속 프란치스코회	축일 축복
오전 10시	연	김은숙(세레나)	가족	영원한 안식
		정학량(요한세바스찬)	가족	
		박원규(바오로)	이재업	
		류중재 박오술(데레사) 박종근 송순임(마리아)	류낙진	
		이정언(베드로)	가족	
		신택현(암브로시오) 이태경(글라라)	김형중	
		이영자(엘리사벳) 안병록(바르나바)	가족	
		성여용(마리아)	가족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오전 10시	연	박재범(바오로)	노준걸	영원한 안식
		오형택(요셉)	이낸시	
		신숙향(안나)	문혁	
		한진수(그레고리오)	가족	
			밥정회	
		김대학(힐라리오)	가족	
	생	정창임(아녜스)	강명숙	주님 은총 축복 건강 성가정
		임경화(데레사)		
		이소희(크리스틴)가정	엄마	
		이희종(앤드류)가정		
		김영숙(비비안나)	권율리아나	축일 주님 축복 영육간건강
		정은아(율리아)	가족	축영명축일 주님 은총
		강진섭(요한) 이복순(아가다)	대모	축생일 주님 축복 자비 감사
		강경주(율리아)	권율리아나	축 생신 주님 축복 영육간 건강
		강선순(아나다시아)	강호신	
		길병관(프란치스코)	강경숙	
		조윤신(로제리오)	최데레사	영육간 건강 주님 축복 은총
		알렉산드홍(요셉)	홍정환	
		김행리 가정	가족	
		신옥자(스텔라)	노준걸	건강 회복 주님 은총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

♡ 매일 저녁 9시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을 위한 주모경 마치고 신부님 강복 받기 캠페인 매일 오후 9시 알람 설정
매일 저녁 9시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을 위한 주모경 마치고 신부님 강복 받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모경 바치면 신부는 강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 특별헌금 - 은퇴 사제들을 위한 : 오늘(12월 7일) 미사 중

♡성탄 판공 성사 실시
대림 1주부터 대림 3주까지 매 미사 30분 전에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림 판공성사 2-3주 기간에는 토요일 저녁 8시 미사와 주일 7시, 10시 미사 중에도 성사 줍니다
묵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뒤에 마련된 판공 성사표를 기입하셔서 고백소 안에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성탄 제대 꽃 봉헌
Warrington $100.- Godfrey $100.- Norristown $100.-
Lansdale $100.- Jenkintown $100.- 최신일 $100.-
성가대 $100.- North Penn $50.- 배경수 $100.-
Cottman & Pennypack $100.-

♡ 2026년 교무금 책정서 봉헌
여러분이 봉헌하신 교무금은 본당 공동체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니 정성껏 책정하셔서 12월 28일(주일)까지 성당 뒤에 봉헌함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에 연차 총친목회
일시 : 12월 7일(주일) 교중 미사 후 (11:30am)
참가 대상 : 레지오 단원 , 행동단원, 협조단원
준비물 : 묵주, 레지오 수첩

♡ 꾸리아 월례 회의
애덕의 모후 : 12월 7일(주일) 8:30am
그리스도의 모후 : 12월 14일(주일) 8:30am

♡안나회 모임 : 12월 14일(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점심식사와 연말 선물이 있으니 안나회원 전원 참석 바랍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성시복을 위한 기적을 구하는 전구의 기도 *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성시복을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답니다.
추기경님을 통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추기경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표시이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추기경님 이름으로 기적을 구하는 전구의 기도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추기경님은 생전에 각별히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을 사랑하셨다니 그 사랑에 기대어 기적을 요청하는 전구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 각자 추기경님 이름으로 전구의 기도를 해서 기적의 은총도 받고 추기경님이 하늘 나라에 계심을 확증받아 성인품에 올랐으면 합니다 각 단체, 구역에 신자들과 공유해 주세요.
유트브 링크 : https://youtube.com /watch?v=xwDdQ2yyCDQ&si=2UATS512Ss2Yx9kE

*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시성 기도문과 김수환 추기경님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전구의 기도문이 성당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2026년 주보 광고 안내 : 1년 광고비 $600.-
2026년 주보에 광고를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영수증 모으기 안내 11월 한아름 영수증 마감일 : 12월 14일(주일)
* 한아름 영수증은 개인 스마트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은 무효 처리됩니다
* 아씨 : 물건 구입시 "9020, 성당, 가톨릭" 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 아씨는 2026년 1월 1일부터 성당에 적립되는 수익금 번호가를 우리 본당은 98820으로 바뀌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김승원 카이로프랙틱 척추신경의료원
Ambler (215)641-9808
Cheltenham (215)276-1976

경희 한의원
545 N. Bethlehem Pike
LowerGwyneddPA19002
(Tel) 215-224-2070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이즈미(Izumi)
(아씨 푸드코트)
돈까스/우동/덮밥
테리야끼/카레/교자
(215) 412-4228

김홍길 회계사무소
(215) 635-7536

빛나 전기
김영찬 (Tel) 215-783-2528
Licensed Electric
Contractor PA, NJ

장우균 CPA
김승범 공인회계사
(215) 635 - 6463
wchangcpa@gmail.com

그레이스 김 보험
오바마 케어
메디 케어
610-275-6321

Sushiwa Poke & Roll
스시와
575 Horsham Rd.
Horsham, PA 19044
www.sushiwaorder.com

Kim-Park Funeral Home & Cremation Services
김기호·박성남 예의원
Keeho Kim Funeral Director
Sung N Park FD/Supervisor 215.548.8000

State Farm
비비안 리 종합보험
(215) 628-4323

공인회계사 CPA
박희중.고현우
(215) 782 - 2121

빅센트릭 가전제품
창고판매 => 시간, $$ 최대 절감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 -
무료배달, 판매세 없음, 무이자 할부
443.250.8094/sales@BigCentric.com
151 Edgemoor Rd, Wilmington, DE